

정기지방회 마무리, 이종만 이상문 목사 부총회장 후보 추천

부총회장 후보·서기 후보 복수 출마... 대부분 단독 출마 예상 두 번째 여성 지방회장 배출... 총회유지비 지방회 통해 일괄 납부



서울중부지방회가 주님앞에제일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회무를 처리하고 있다.

마무리된 정기지방회 주요 이슈

2025 정기지방회가 지난 3월 17일 서울중부지방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가장 관심을 모은 총회 임원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천양)가 총회장 후보로 추천됐으며,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이종만 목사(생명수샘)와 이상문 목사(두란노), 장로부 총회장 후보는 이광섭 장로(성현)가 추천을 받았다. 서기 후보는 현 부서기 김성은 목사(시흥중앙)와 이규현 목사(마포제일), 부서기 후보는 현 회의록서기 전승환 목사(개장호원반석) 단독으로

추천을 받았고, 회의록서기는 허상범 목사(삶을변화시키는)가 대의원 추천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회계 후보는 한정수 장로(잠정), 부회계 후보는 정현 장로(답십리)가 단독으로 추천을 받았다. 두 번째 여성지방회장을 배출한 것

도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교단은 2003년 여성안수가 통과된 후 20년 만인 2023년 정기지방회에서 첫 여성 지방회장(조명선 목사)을 배출했으며 올해 두 번째로 고양지방회에서 (김현숙 목사) 여성 지방회장을 배출했다. 지방회장 외에도 임원진에 많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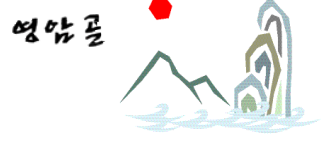
목회자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 향후 3~4년 내에는 더 많은 여성 지방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회에 상정하는 현장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부천지방회가 정기지방회를 통해 결의한 총회유지비납부시 지방회를 통한 일괄 납부가 눈길을 끈다.

현행은 총회 사무국에서 매달 개교회에 지로용지를 발송해 유지비를 납부토록하고 있으나 우편비용의 절감과 1400여 개에 이르는 우편발송 작업의 비효율을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이밖에도 지방회 차원에서 유지비를 일괄 납부시 총회사무국에 운영하는 것 보다 납부율을 향상 시킬수 있다는 계산도 업무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부지방회는 지난 제103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현장개정안 중 부결된 '세례교인 의무금'에 대한 대안으로 총회유지비 세례교인 1인당 5천원의 총회사랑 후원금 납부 운동을 결의했다. 시범적으로 서울중부지방회가 먼저 실시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안건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2024년 현장개정위원회회를 통해 통과되었던 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 임기에 대한 개정안들이 산하기관들을 통해 상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사장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가 상이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시행 1년 여 동안 꾸준한 논의들이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18세기와 19세기 인류 역사에 큰 흐름을 가져온 책 두 권이 소개되었다. 하나는 1776년 영국의 경제학자 Adam Smith가 펴낸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다. 국부론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도입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며 열심히 일하는 만큼 내게 돌아오는 것이 많게 하는 경제 논리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인 경제원리다. 그의 고국 영국은 일찍이 이 원리를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시켜 200여 년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세웠고,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세계 많은 서방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제를 일으켰다.

국부론이 나온 지 9년 후, 1867년에 독일의 Karl Marx는 사회주의의 바이블로 평가되는 자본론(Das Kapital)을 펴낸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여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사는 사람도 없는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담은 내용이다. 이후 마르크스의 사상은 들끓어오른 번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소련)과 동유럽국가들, 남미와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김일성의 북한 등이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다.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70여 년 만인 1991년에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원리는 파국임이 드러났다.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공부하며 성경을 배우고 익힌 이승만(장로) 대통령에 의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였고, 이제 당당히 G-7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상황을 보면 가난과 억압에 찌들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다. 허투루도 빨리 김씨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을 통일을 이루어 우리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의 4대 기본 가치관인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 열린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인권 존중, 법치주의 위에 기초를 둔 그런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이 땅에 친북 친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확고하게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清水 ehc3s@hanmail.net

3월 24일 총회 임원후보 등록 개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정 확정, 2번의 정견발표 예정

제104회 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정민 목사)가 지난 10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선거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일정은 오는 3월 24일(월)과 25일(화) 양일간 임원후보 접수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서류자격

심사와 등록확정 후, 4월 7일(월)에는 기호추천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4월 19일 0시부터 5월 18일 자정까지 공명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후보자 정견 발표는 권역별로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선거위원장 문정민 목사는

"공명정대하고 금권없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도 노력해 주어야 하지만 유권자들과 후보들 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선거기간 동안 교단의 구성원들이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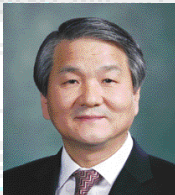
(하단 광고 참조)

깨끗한 선거, 여호와께 성결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헌장 '총회임원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운동 및 규제가 시작됨을 공고합니다.

위원장



문정민 목사
동산교회

부위원장



김종현 장로
참좋은교회

서기



김규식 목사
소망교회

회계



김재홍 장로
주님앞에제일교회

위원



김동환 목사
예수목민교회

위원



박요섭 목사
남부교회

위원



김영철 장로
세광교회

위원



유경준 장로
신원동교회

위원



진성아 장로
고천교회

- 선거일 : 2025년 5월 19일(월)
- 장소 : 오크밸리리조트(강원도 원주 소재)
- 선거운동 규제기간 : 2025년 4월 19일(토) 0시부터 5월 18일(주일) 24시까지
- 후보자 등록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오후 1시 ~ 오후 4시, 3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 오후 4시까지
- 후보자 등록 서류 접수처 : 총회본부 회의실
- 서류자격심사 및 등록 확정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1시 ~ 오후 3시
- 후보자 기호추첨 : 2025년 4월 7일(월) 오후 3시 총회본부
- 후보자 정견발표 : 추후 공지
- 후보자 영상 제출마감 : 2025년 4월 20일(주일) (총회장, 부총회장, 그 외 임원후보자 2분)

2025년 3월 18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정민 목사 | 서기 김규식 목사